

4월 27일 오전 제 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다녀왔다. 처음 간 곳은 홀 A였다. 홀 A에서는 렉스로보, 3.14, 마이크로소프트, asus 등을 갔다. 3.14에서는 초대장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카미봇도 보고왔다. asus에서는 노트북을 구경하다가 시계를 선물받았다. 홀 B에서는 위드베리라는 곳을 갔는데 뷰티 관련 회사였다. 이 부스에서는 무료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았다. 교육박람회라고 해서 나와 관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로봇코딩, 스크래치, 티쳐블 머신 등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많아서 재미있었다. 특히 어느 회사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인공지능 분야중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computer vision 분야에 관련해서 참가한 회사가 있었다. 동작을 인식해서 놀이기구 모형을 작동 시키는 원리였는데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더 뜻깊은 부스였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와서 박람회를 참석하고 학교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들어야 해서 피곤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였다.

